

벼랑 끝 새누리, 분당 막기 비대위 카드

김무성·최경환 비대위원장 거론... 이정현 “열린상테서 논의”

비상시국회의의 “비박 추천 비대위원장 전권 갖고 당 쇄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내분에 쌓인 새누리당이 대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하고 있어 분열을 막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박(비박근혜)계 대표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와 진박(진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최근 두세 차례 회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새누리당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도 비대위 구성을 ‘제로 그라운드’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나는 등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실무자 연석회의를 연 뒤 비대위 추천권에 대해

합의했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이정현 지도부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할 때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추천하는 인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5선)·김재경·나경원·정우택·주호영·홍문종(이상 4선) 의원 등 진박계와 비박계 중진의원들이 모인 ‘3+3 협의체’도 이날 저녁 회동,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전히 진박을 ‘최순실 비호세력’, ‘박근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이라 칭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당내 분란이 사그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비상시국위원회에서도 진박을 포용하는 듯한 모양의 비대위

논의에 반발이 있어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한 비박 중진 의원은 중진협의체에 대해 “진박이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는 좋지않다”며 “그 모임(중진협의체)에서는 이제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에 이어 이날도 정두언·김정권·김상민 전 의원 등 8명이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한숨, 역사의 외침보다 패거리와 사익에 급급한 당의 모습이 부끄럽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1년과 대선 후보가 된 2012년 비서실장을 지낸 진박계 3선 이학재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에게 검찰청사에 출두해 수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진박계 내부의 이탈 세력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비주류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에 대해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사퇴설을 일축하고 “12월21일 사퇴”를 다시 못박았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박 지도부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그는 “제가 사퇴한 이후 당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2월21일 사퇴까지) 이 귀한 시간에 비대위가 됐건 (내년 1월 조기)전당대회가 됐건 의견을 모아 개혁, 쇄신, 제2창당 등 구체적인 의제를 모으는 데 (제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뿐 아니라 체제 전환 후에도 당내 분란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속도 내는 탄핵정국...속수무책 청와대

야3당-여 비주류 공조 탄핵...관망 속 새누리 방어 기대

청와대는 23일 야 3당과 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자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향후 검찰·특검 수사와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걱정스런 분위기를 나타냈다.

정영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우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탄핵 배수진을 치며 정국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후에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만약 다음달 초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생각보다 빨리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의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겪어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는 내심 새누리당이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문제는 당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특검 수사에 법리적으로 대비하면서 국정을 쟁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심화하면서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도 궁지에 몰리고 당도 분란이 가중되면서 위기를 돌파할 동력이 없을지 의문시된다”며 “결국은 국민 여론이 청와대와 당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의 변명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용”

청와대는 23일 ‘비아그라 구매’ 보도와 관련해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안 써 그 대로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비아그라 50mg 60정이라고 하는데 고산병 예방용이자 치료용으로 구입했다”며 “혈관 확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정씩 세 번, 4~5일 동안 복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아그라의 복제약품인 팔팔정 304정을 구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비아그라가 비싸서 복제품으로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고산병 예방약으로 시중에서 다이아막스로 알려진 아세타졸아마이드가 있는데 남미 순방 때도 가져갔고, 아프리카 순방 때도 가져가 경호원 등 개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남미 순방 때 아세타졸

아마이드만 가져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아프리카 순방 때에는 예방용이자 치료용인 비아그라를 같이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약품은 순방을 앞두고 주치의가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처방받은 약품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바 있다. 3개국 수도는 해발고도 1000~2000m 고원에 위치해 있다.

정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에토미데이트루로주’를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속 기관 삼파를 위한 응급 약품으로 의무실장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필수 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주선, 인터넷소통협회 ‘소통대상’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이 한국인터넷소통협회(광주)가 뽑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23일 서울 중국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9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소선포럼을 열어 대상 시상식을 열고,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등 6명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박 부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10여 개 행사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는 23일 기준 151회째를 맞이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발로 뛰는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SNS지수를 이용한 수렴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추진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권일기자 cki@

김무성 대선 불출마 승부수로...‘新 보수’ 새 무대 모색?

박대통령 탄핵 발의 앞장

친박과 등져 탈당 가능성

개헌 후 총리 염두설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2012년 총선 불출마 등 ‘백의종군’의 경험은 있었지만 자신의 최종 목표였던 대선 출마 의지를 접은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의 변으로 ‘책임론’을 들었다. 그는 이날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자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대표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의 별명인 ‘무대’(무성이 대장) 기질을 발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위기 수습과 당의 혁신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으셨다”며 “김 전 대표께서 보수의 저력을 보여주는 자기희생과 결단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석호 의원은 “지난번 ‘공천 파동’ 때부터 책임감이 있었는데, 대통령마저 저렇게 되니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김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주도는 경우에 따라선 탈당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선 어렵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탈당 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한계점이 오면 결국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다. 이는 탄핵안 발의·의결 시점을 전후해 탈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탈당파에 합류하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고, 이른바 ‘제4지대’를 중심으로 중도·보수 진영의 새판짜기를 주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미래를 개척해 나가지 않느냐는 관

측도 내놓고 있다.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 실권을 쥐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 되며, 그 해결책은 개헌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